

‘상반기 IPO 최대어’ 현대오트에버 상장이 주목받는 이유?

# 구주매출로 900억 확보, 현대차 경영권 승계 ‘숨통’

(정의선 수석부회장)

**HYUNDAI  
AutoEver**

28일 코스피상장 목표 IPO 돌입  
공모규모 최대 1544억원선 결정  
그룹이 사할 건 ICT 핵심 계열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현대오트에버가 오는 28일 코스피시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올해 첫 코스피 상장사이자 상반기 최대 ‘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상장을 눈여겨 보고 있다. 현대오트에버 상장의 성공여부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승계 방식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서다.

## ◆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오트에버는 오는 13, 14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4만원~4만4000원)를 결정하고 19, 20일 양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의 진행한다. 공모 규모는 1404억~1544억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모가는 비교기업(삼성SDS, 포스코 ICT, 롯데정보통신, 신세계I&C)의 평균 PER인 24.04배에서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현재 공모가 기준 PER은 16.09배~17.7배 수준이다.

현대오트에버는 현대차그룹의 유일한 정보기술(IT) 전문기업이다.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사할 예정인 정보통신 기술(ICT) 육성에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현대차그룹 엔터프라이즈IT사업부장인 오일성 상무를 전무로 승진 발령하고, 현대오트에버 대표이사

## 〈현대오트에버 IPO 개요〉

액면가	500원	수요예측일	3월13~14일
공모희망가	40,000~44,000원	청약예정일	3월19~20일
공모주식수	3,510,000주	상장예정일	3월28일
공모예정금액	1,404억~1,544억원	주관사	NH투자증권

## 〈현대오트에버 실적 추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3Q
매출액	1,335,966	1,473,376	996,486
영업이익	80,424	72,913	49,053
당기순이익	64,707	55,180	40,089

로 내정하면서 그룹사가 현대오트에버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 정의선 수석부회장, 승계 ‘실탄’

이번 현대오트에버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대오트에버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34만7580주)과 구주매출(316만2420주)로 진행된다. 총 공모주(351만주)의 90%가 구주매출인 셈이다.

이 중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201만주를 갖고 있다. 전체 구주매출의 63.6%다.

현대오트에버 공모가가 최상단에서 결정되면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총 884억 4000만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 자금이 향후 경영권 승계에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가장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매입”이라며 “여기에 드는 자금은 총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이 추산한 정의선 부회장의 현재 추정 가용자금은 2조8686억원 수준

이다. 여기에 현대오트에버의 구주 매출을 통한 자금확보가 이뤄지면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

또 현대오트에버 상장 후 현대글로벌비스와의 합병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현대글로벌비스(23.29%)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비판 속에서 좌초됐다는 점에서 합병을 통한 현대글로벌비스 가치 상승이 현대모비스 합병 시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현대오트에버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 그룹사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구주매출이 있다는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현대모비스와 합병 가능성 등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오트에버는 2000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로, 2017년 기준 매출 1조4734억원, 영업이익 729억원 규모다. /손잡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대형GA 내부통제 ‘보험사 수준’ 강화

금융위 ‘불완전 판매’ 발생 조치

‘보험 상품 판매 공황’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500인 이상 GA는 매년 1회 내부통제 업무실패를 점검하고 금감원에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의무적으로 별도의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도 설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에 비해 GA는 내부통제기준 관련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불완전 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추고 보험설계사가 1만명을 넘어서는 초대형 GA가 등장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에서 분쟁은



올 3분기부터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판매 품질이 여전히 소비자 의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위에 상정된 대형GA 제재 건수는 28건으로 지난 2016년(15건)에 비해 13건 증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500인 이상 대형GA의 내부통제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매년 1회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 업무실패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얼어붙은 1분기 반도체 시장... 해빙 기대도

삼성·SK, 분기 실적 전망치 낮출듯  
가격 안정세 등 2분기 ‘회복’ 의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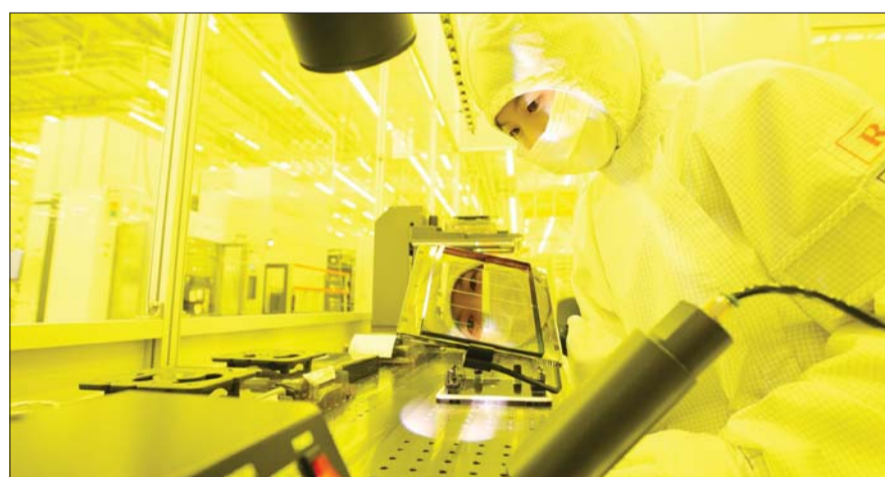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1분기에도 암울한 실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해동’ 기대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월 수출 동향이 발표된 직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을 더욱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초 시장은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을 168억6000만달러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2월까지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92억6000만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1월 47억6000만달러, 2월 67억7000만달러다.

3월에만 반도체를 76억달러 수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1~2월이 비수기이긴 하지만, 2월 대비 3월 수출액 증가율은 지난 20년간 30%가 최대다. 최대치를 적용해도 120억달러대로, 기대치를 한참 하회한다.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있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라인. /뉴스1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전망치를 크게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사업체인 SK하이닉스가 받을 충격은 더 크게 예상된다.

단, 일각에서는 2월 수출 동향이 오히려 반도체 업황 회복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내놨다. 전달 대비 수출액 하락폭이

바일항 MCP가 39.5%, 플래시메모리가 10%로 1월보다 축소됐기 때문이다.

반도체 가격도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반도체 고정부 가격은 전달 대비 10% 초반대 하락하는데 그쳤다. 2분기 이후 수요가 회복하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이어진다.

/김재욱 기자 juk@

## 실업률 0.8%p 오른 4.5% ‘고용쇼크’

▶▶ 1면 ‘고용·성장 영망인데...’서 계속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1% 감소한 395억 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12%), 지난 1월(-5.8%)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23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금융 지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던 대책이어서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고용지표는 ‘고용쇼크’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1만9000명 증가에 그친 반면 실업자가 20만4000명 급증했다. 정부는 고용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판단에 일자리 사업의 총 13조4000억원 중 2조5000억원(18.6%)을 집행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4만달러 달성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5%라면 2024년, 2%라면 2027년 무렵에서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2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올라가는 기간에 비해 3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산술적으로 짧을 것으로 보인다”며 “10년 미만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주 기자 hj89@

## 국토부, LCC 3곳에 신규면허 발급

무안거점 에어필립 탈락 쇼크  
타당성 거쳐 3년만에 첫 발급

국토교통부가 5일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 면허 심사 결과 플라이강원·에어프리미아·에어로케이 등 3개 항공사에게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신규 항공 면허가 발급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처음이다.

정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낸 항공사는 5곳이었다.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거점의 에어로케이, 인천 거점인 에어프리미아, 무안공항 거점으로 소형 항공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필립 등 4곳과 화물면허에 청주거점 가디언스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항공사는 거점 지자체의 후원을



에어프리미아 항공기 예상도

등에 업고 공격적인 홍보·대관업무에 나서는 등 면허 발급에 총력을 펼쳐왔다.

국토부는 자체 7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심사와 함께 한국교통연구

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허 발급 여부를 검토했으며 이날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 심사위에서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한 LCC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와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항공사와의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신규 항공사의 진입은 분명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 것”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달보다는 인력유출이나 가격경쟁 등 국내 항공시장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